

제1차 건설업종 동반성장 실무위원회 개최



▲제1차 건설업종 동반성장 실무위원회가 지난 3월 16일 동반성장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건설업종 동반성장 실무위원회가 지난 3월 16일 동반성장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향후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동반성장 활성화 방안 등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정상락 현대건설 전무가 부위원장에는 김혁 산양공영 대표이사가 맡았다.

이날 회의에서 설비건설업계를 대표하여 대한설비

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이상일 회장이 건설업종 동반성장 실무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건의했다.


이상일 서울특별시회 회장은 “국제정세 불안과 부동산경기 침체로 국내 건설시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최근 원유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건설 주요자재인 강재류가 전년 대비 30% 이상 인상되어, 우리업계는 수주물량 감소에 따른 저가수주 경쟁과 자재가격 폭등

건설업종 동반성장 실무위원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이상일 회장은 설비건설업계를 대표하여 “원·하도급업체 간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원도급업체가 제값을 받고 협력업체인 전문건설업체에 제값을 주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며, 자재가격 폭등 시 협력업체에게 에스컬레이션을 즉시 적용해 주는 등 원·하도급업체가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상생협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에 따른 원가부담의 이증고로 고사 직전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업계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할 정책적 대안을 정부가 마련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건설업종 동반성장 실무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정부에 건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상일 서울특별시회 회장은 또 “원·하도급업체 간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원도급업체가 제값을 받고 협력업체인 전문건설업체에 제값을 주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며, 자재가격 폭등 시 협력업체에게 에스컬레이션을 즉시 적용해 주는 등 원·하도급업체가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상생협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동반성장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사회적 갈등문제를 발굴하고 합의를 도출하여 대·중소기업 모두에게 상호 이익이 되도록 동반성장문화 확산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중 업종별 동반성장 실무위원회는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동반성장 활성화 방안 마련, 사회적 이슈에 대한 효과적 대응, 동반성장 정책 제안·우수사례 전파 및 업종별 동반성장 모델 개발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 이상일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은 설비건설업계를 대표하여 건설업종 동반성장 실무위원회에 “실질적이고 상생 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한 위원회 활동을 해달라”고 주문했다.